3 -MAY 2 6
Copy 1959

—우리를 찬양하고 있군요
—후방 인민들의 결의야 찬양 할만 하지요

리영춘 그림

2월호

1957년(75)

활살

리승만의 국무원회의

미제의 사촉하에 리승만《정부》는 작년도 보다 60%나 더 증가된 2천185억환의 예산을 강제 통과 시켰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에게 한층 더한 죽엄과 빈궁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다.

—한 계단 더 올리자

박승히 그림

괴뢰 장군

김 광현

《국방군》장관 중의 하나인 최 영희는 전라도 대 지주의 외아들로 태여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흔히 양돼지라고 불리웠다. 사실 그는 돼지처럼 먹었으며 돼지처럼 머리가 우둔했다. 하기에 6학년제 보통 학교를 10년만에야 졸업했으며 서울 사립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그의 아버지가 하루같이 땅을 팔아서 기부해야만 했다.

그는 중학교 1학년생치고는 지내 나이가 많았을뿐더러 너머나 덩치가 컸다. 그런데 그를 보고 일본인 유도 선생은 기뻐했다. 과연 그는 일본인 유도 선생이 기대했던 것처럼 나이 어린 학생을 메다꼰지기를 잘했으며 해마다 거듭 락제를 했으므로 점점 더 어린 학생을 상대하게 되니 어연듯 유도 선수로 뽑히여 이름을 날렸다.

그 덕분에 그는 이러저럭 중학을 나올 수는 있었으나 근 20년을 두고 배운 그의 학식이란 돼지꼬리보다 더 적었으니…일본에서 제일 시시한 어느 사립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의 아버지는 또다시 하루같이 땅을 팔아야만 했다.

그가 그렇게 돈을 드려 대학생이 되였을 때 소위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며 《학병》선풍이 불었으니 그도 총을 메고 《어이쩌 너…어이쩌 너…》를 부르게 되였다.

그런데 그에게는 참말로 세상이 다행스러웠다. 그의 중학교 유도 선생이 바로 그가 입대한 부대의 훈련 교관으로 있어서 그를 간부 후보생 시험에 우물적하니 통과시켜 일본 륙군 소위의 금줄 견장을 달게 해 주었으니…이것은 참말 최 영희에겐 뜻하지 못했던 기쁨이였다. 하기에 그는 8·15 해방이 되여 일본 군대가 완전히 패망되였을 때에도 금줄의 소위 견장을 떼여버리기가 아수하여 그냥 일본 군복에 일본도까지 차고 으시대며 환고향을 하였다.

일제의 학정에서 해방된 기쁨에 들끓던 고향 사람들은 최 영희의 이 우스운 꼴을 보고 《양돼지가 미쳐서 돌아왔다》고들 했다.

그는 이 말을 엿듣고 화를 내며 일본 유도식으로 농민들을 메다꼰치려고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 미친 놈아! 정신 좀 차려라》고 무푸리 채찍으로 종아리를 치며 일본 군대의 금줄 견장을 뜯어 짓밟아버렸다.

그리하여 최 영희는 허겁지겁 서울로 도망왔으나 일본 군대의 금줄 견장을 좀체 잊을 수 없었으므로 김석원, 채 병덕, 정 일권 등 일본 군대에서 출세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를 즐겼다.

그러던 어느날 미군이 통역을 데리고 그들 앞에 나타났다. 최 영히는 자기들을 잡으려 온 줄 알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소위 《대동아 전쟁》때엔 미군을 격멸해야 한다고 웨쳤기 때문에——그러나 미군은 《우리는 당신네 친한 친굽니다》라고 운을 떼며 《많은 군대를 양성하라》고 타 이르고 갔다.

그때로부터 그 패당들은 은근히 뒤에 숨어서 소위 국군 준비대를 만들었다. 다만 최 영희는 세상 사람들이 그다지 친일파인 줄 모르므로 앞에 내세우기에 편리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상속 받은 논밭까지 팔아다 더며대며 《하낫 둘 하낫 둘》졸개 훈련에 신이 나서 운동장을 가로 세로 뛰여다녔다.

리 승만이가 괴뢰 정권을 잡자 《국군 준비대》는 《국방군》이 되고 채 병덕이가 소위 《국방군 참모총장》이 되며 그 패당이 하나둘씩 뽑히여 높은 자리에 올라앉더니 드디어 최 영희에겐 《헌병 사령관》이란 벼슬이 차례졌다.

이 어마어마한 감투 앞에서 그는 그만 뒷거름질 쳤다— 자기의 실력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그러나 그 패당들이 실제 일은 밑에서 다 해 줄테니 도장만 쥐고 앉아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 걱정말라는 바람에 그 자리에 올라 앉았다.

그렇던 어느날 미군의 고관이 그 앞에 나타나서 물었다.

《사령관 각하 재미가 어떻십니까?》

《거저 허수아비처럼 도장이나 쾅쾅 찍는 재미죠.》

미군 고관은 이 대답을 미처 알아듣지 못한척 하고는 돌아서서 만족한듯이 히죽웃었다. 오늘도 돼지는 《꿀꿀》소리만 지르고도 살아나가듯이 최 영희는 《북진 북진》만 짓거리면서 《국방군》내의 높은 벼슬을 때임하며 수많은 남조선 청년을 전쟁에로 내몰고 있다.

《좋게 지냅시다》

유 항림

종로 뒷골목 술집거리로 사십이 남짓한 정신병자가 매일밤 구걸하며 다녔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소?》

그는 술집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너 장경부 아니냐?》

하고 응수하는 손님들도 있다. 그럴 때마다 이 정신병자 거지는,

《그러지 말고, 우리 좋게 지냅시다.》

하면서 손을 내밀고는 잔돈푼이나 혹은 안주 한점을 집어 줄 때까지는 물러서지 않는다. 어떤 손님은 귀찮다는 듯이 그가 입을 벌리기 전에 먼저

《애, 장경부야, 좋게 지내자.》

하면서 안주나 한점 집어주어서 곧 쫓아 버리는 적도 있다. 혹은

《개자식! 꿈에라도 볼까 겁이 난다니까 여기까지 따라다니는군!》

하고, 욕질만 할 뿐 끝내 안주 한점 집어주지 않는 손님도 있다.

그러러 왜 하필 경부라고 부르느냐고 물어볼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이 이자는 서울 중부 경찰서의 경부로서 악귀 같은 이름을 날린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누군지 모를 사람들한테 반주검이 되도록 얻어 맞는 일이 가끔 있다. 이런 때도 그는

《우리 좋게 지냅시다.》

하는 말만 자꾸만 되풀이하면서 그 모진 매를 맞는다고 한다.

그러면 한때 세도가 당당하던 장경부는 어찌다가 이 몰골이 되였는지 궁금히 생각할 사람도 있을는지 모른다.

△

서울 중부 경찰서에서 강도 일당 네명을 체포하여 취조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강가라는 자가 장경부와 만나게 해 달라고 간청했었다.

《이 자식이 건방지게 우리따위와는 이야기가 안된다는 수작이지!》

취조하던 형사들은 따귀를 한대씩 더 갈기면서 욕설을 퍼부었으나 역시 장경부에게 알렸다. 장경부가 고문실로 내려 왔을 때 강가는 넌짓이 속사겼다.

《단 둘이서 말씀드리게 해주신다면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을 하나 불겠습니다.》

장경부는 형사들을 내보내고 물었다.

《대체 어떤 사건이냐?》

《네, 살인강도 사건입니다. 비싼 수입품만 취급하는 상점에 들어가서, 점원 한명을 찔러 죽이고 시'가 이백만환어치나 가져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날밤에 경찰이 망을 봐줬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아주 뻐젓이 했어요.》

《뭐? 이자식아, 함부루 경관을 무고하다가는 외줄 그네를 뛸줄 알아라!》

《네, 뒤 앞이라구 나리'님네들을 함부루 헐겠어요. 그저 한때 신문에서 떠들어대던 백마 양품점 사건의 내막을 말씀드리겠단 말입니다.》

장경부의 얼굴에 대번에 당황해 하는 빛이 떠올랐으나, 잠시 마음을 진정시킨후에 강가를 자세히 들여다 보았지만 아무래도 낯익은 얼굴은 아니므로 또한 번 을려 보았다.

《이자식아, 지금 와서 바쁜 사람을 불러놓구야 실로를 하는건 뭐 생색을 내자는 거냐?!》

《나리'님, 왜 이러시우, 이 강창훈이는 모른다구 빼긴다 치드래두, 전달에 밀수선에서 물에 떨어져 죽은 최칠성이두 모른다구 하시겠어요?》

장경부는 다시 호통을 치려다가 꾹 참았다. 아무리 을러 본댓자, 백마양품점 사건은 자기가 최칠성이와 군을 짜고 했으며 훔쳐낸 것도 서루 나눈 걸 이자가 다 상세히 알고 있는 모양이니 차라리 얼리는 편만 같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진작 말하지 않구, 조서까지 거의 다 된 지금에야 말하니, 나두서두 난처한 일 아니냐?》

《어련히 해 주시지 않으리 하구 믿구만 있었지요.》

《난 아직두 임자의 얼굴이나 이름이 통 생각나지 않으니 탈 아니냐!》

《나리'님이야 오죽 많은 사람들과 상종을 하십니까. 게다가 난 최칠성의 수하의 사람이였구……》

이렇게 되고 보니 장경부는 난처해졌다. 반대파 인사들에게 해로롭 한다든가 하는 사건이라면 사람을 한둘 죽였드래도 무죄석방하는 것쯤 식은 죽 먹기지만 이 사건만은 그런 정치적 배경도 없고……최칠성에게서 받은 돈을 그때 상관들에게 약간씩이라도 나누어 줬더랬으면 지금 이자를 빼내는 데도 쉬우련만 그렇지도 못했고……

강가를 빼내노라고 장경부는 무등 애를 썼다. 그리하여 결국 그자를 빼내긴 했지만, 얼마나 로심초사를 했든지 간에 그는 신경을 상하고 말았다.

그후부터는 체포한 죄인을 취조하려고 할 때마다, 이자도 자기와 무슨 질련이 있는 자가 아닌가 하고 의심이 앞서군 하는 것이였다. 지금까지 그는 강도, 절도, 밀수, 위협 공갈, 사기 횡령 등 갖은 범죄에 한몫 끼여 오군 했던만큼 자기가 관계해 온 악당들의 수도 일일히 셀 수 조차 없다. 그러므로 강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까맣게 잊어버린 자들도 적지 않아서, 누구가 누군지 그 자신 알기 어려웠다. 그래서 취조를 시작하기 전에 의례히 딴 방에 조용히 불러놓고,

《임마, 내가 누군지 알어?》

하고 물어보군 했다.

《모르긴 왜 몰라요. 장경부 어른 아니십니까.》

하고, 대답하기만 하면 겁부터 앞서고 가슴이 벌렁 내려앉아서,

《애, 그러지 말고 우리 좋게 지내자.》

하고, 놓아주군 했다.

남조선에서 경부 노릇을 해 먹으려면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드는 재간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이렇게 잡아 온 사람까지 어처구니 없이 놓아주군 하는 장경부를 그 자리에 그냥 둘 리가 없는 일이라, 그는 그만 쫓겨나고야 말았다. 그리고 한번 쫓겨나자 정신의 이상 상태는 더 심해졌고, 누구의 눈에나 정신병자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는, 본처 명색의 계집과 첩치가 시켰던 세명의 계집들이 모두 가장집물을 저마끔 꾸려 가지고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하여 그는 끝내 빌어먹게 된 것이였다.

△

서울에서 흔한 것 중의 하나가 비상 경계다. 새해에 들어서서 두번째로 되던 비상경계 때의 일이다. 때 마침 날씨는 추워서 밤 늦어 순찰을 돌던 두 순경은 몸도 좀 녹일 겸 술 생각이 간절해 졌다. 둘이는 쑤군거린 끝에 종로 뒷골목으로 들어섰다. 어느 술집이건 깨워서 술이나 한상 토색하자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어느 어두컴컴한 곳에 이르렀을 때 앞섰던 순경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누구야, 섰!》

그러나 그들 앞에 선 사람은 없었다. 쓰레기 통 옆에 누군가 그냥 그대로 앉아 있을 뿐이다.

회중전등으로 비춰 보면서 한 순경이 중얼거렸다.

《이게 누구야, 장경부 아니야!》

장경부는 담을 기댄채 쓰레기 통 옆에 쪼구리고 앉아 있었다. 순경 하나가 그의 어깨를 흔들자, 장경부는 짐짝 같이 모로 넘어졌다. 거기서 얼어 죽었던 것이다.

《장경부두 끝내 예서 죽구 말았군!》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듯이 한 순경이 중얼거리자 다른 순경이 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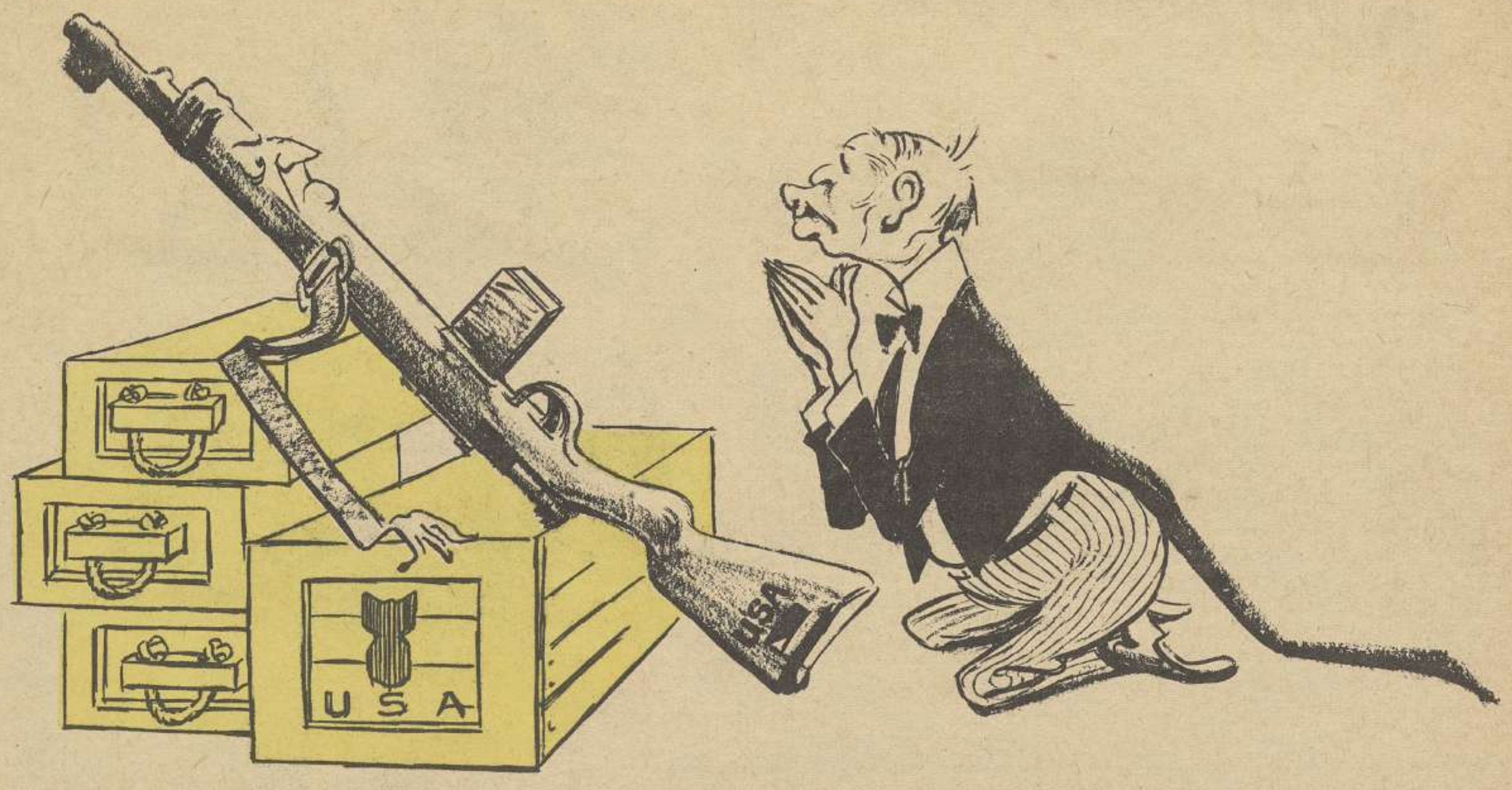
《그러기에 서장님이 늘 훈시를 하지 않아! 경찰 노릇을 해 먹으려면 쓸데 없는 량심 나부랭이는 깨끗이 내버리라구…… 사실 이 장경부두 량심을 한조박 남겨 가지구 있었기 때문에 이 몰골이 아냐?!》

장경부에게 량심의 한조박이나마 남아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론의할 여지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량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자라면 남조선에서 경찰질을 못해먹는 다는 의견에는 우리도 찬동하는 바이다.

자랑 끝에 불 붙는다

송용남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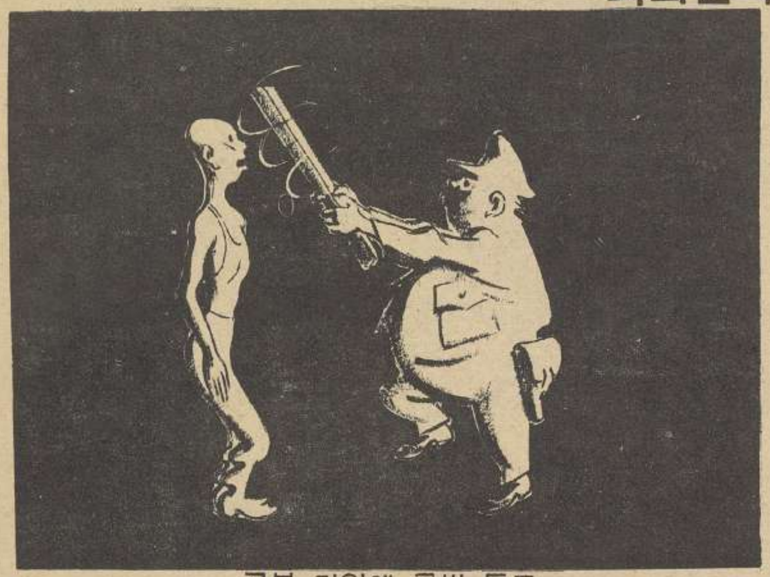
버림 받은 자가 믿을 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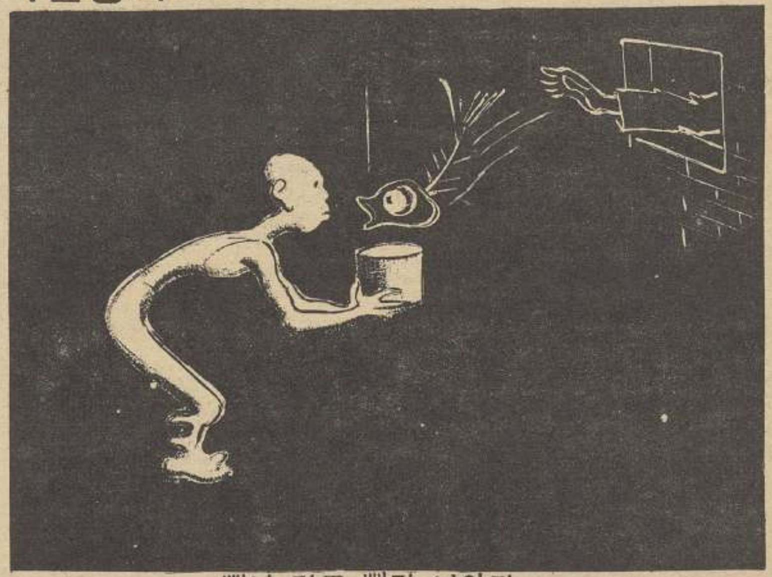
—미국 무기여 그대 아니면 내! 어찌 하룬들 연명 하겠느냐

장진광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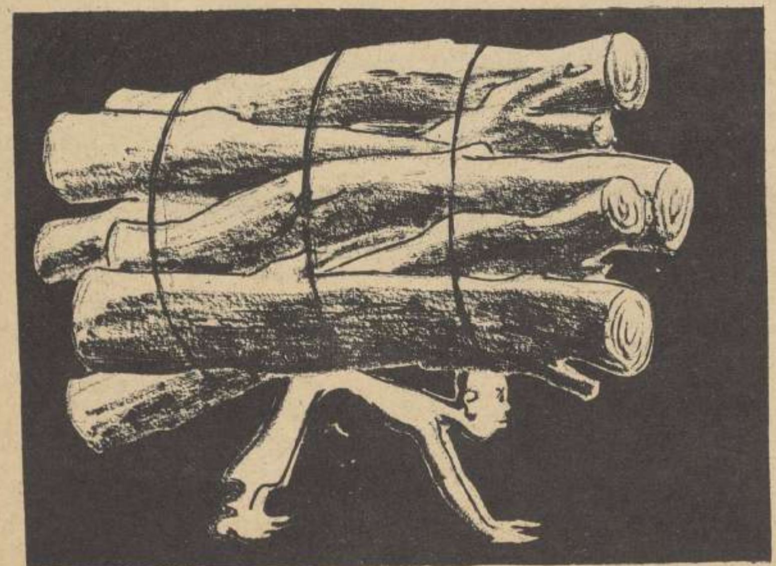
괴뢰군의 기본동작



곤봉 기압에 골병 들고



뼈나 먹고 뼈만 남았다



등'짐 팔아서는 상관 주색 비용

원한 많은 국군의 죽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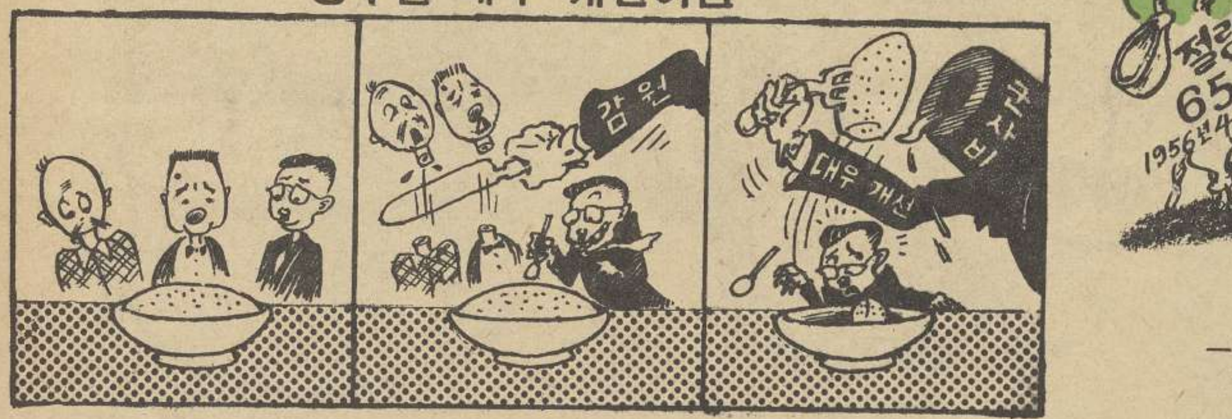
서울거리 만화 스켓치

대량 징모 대량 탈주

전쟁 비용을 부담한 영화관

지배인—세금이 올라서 운영난이요
관 객—운영돼도 비싸서 입장난이겠군…

공무원 대우 개선이란……



안타까운 상봉

—집을 나와 떠돌아 다니니까
쌀 구경을 하겠군…

백인균 그림

나이론 전차

박 노을

서울— 이곳은 열풍이 지지 누르는 남양 땅도 아니다. 살을 베는 겨울바람이 휘몰아 치건만 담벽도 창문도 없는 전차가 덜커덩거리며 거리를 달린다.

아동공원?—그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바퀴만 달린 작란감 같은 전차 우에 소년 아닌 어른들이 이를 악물고 추위를 참으며 앉아 있다.

해수욕장이 아님은 더욱 틀림없다. 그러나 빨간 입술의 《숙녀》들이 지붕만이 그림자를 드리운 전차칸에 마치도 해수욕장 백사장의 파라솔 밑인듯 앉아 있다. 가뜩이나 서울거리를 휩쓸고 있는 나이롱양말, 나이롱 치마로 몸을 휘감은 녀인들은 바다풍경 그대로를 이루고 있다. 바퀴 우에 기둥이 서고 지붕만이 엉성한 전차—시카고에서 쓰다버린 폐물전차들이 오늘은 서울거리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백옥같은 흰 쌀이며 중석을 비롯한 지하의 금은보화를 산더미 같이 빼앗아 가면서도 소위 《한국원조》와 《한국부흥》의 명목으로 실려워온 지극한 손님들이다. 미국이 남조선 인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원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선전을 목적으로 실어온 귀중한 손님이다.

담벽도 창문도 없는 전차, 다리를 그대로 로출시키고 있는 나이롱 양말 같이 거리 이편에서 저편까지 환히 께내여 바라볼 수 있는 전차라하여 서울 사람들은 이 전차를 《나이롱전차》라 부른다. 나이롱전차라 부르는데는 또한 다른 뜻도 포함되여 있다.

나이롱 대양을 건너온 이 말의 어원을 서울 시민들은 또한 잘알고 있기때문이다. 미국 상인들이 지어낸 신제상품의 술어인 나이롱—이 말에도 역시 정복자의 만족감이 포함되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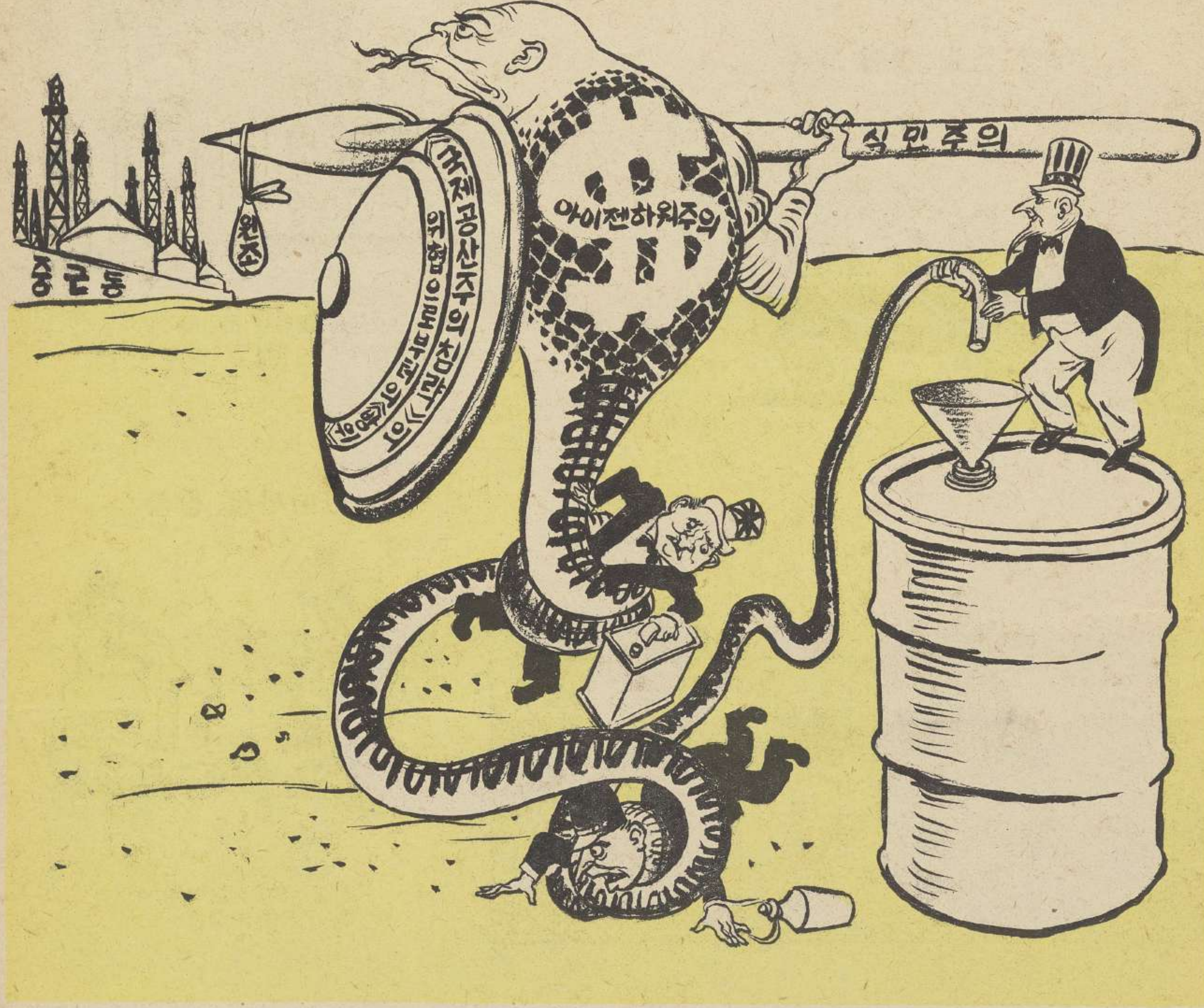
한때 일본 농림성은 명주 양말로 세계 시장에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항하여 소위 새로 발명된 것이 미국의 유리양말이였다. 유리양말—이것을 뭐라고 명명할 것인가?

일본 노린《농림》성을 이것으로써 뒤집어놓을 수 있다고 노린의 스펠을 거꾸로 읽어 나이롱이라 이름진 그들이다.

나이롱! 이는 다른 나라의 산업과 그 상품을 정복했을때, 미국 상인들이 울린 환성인것이다. 놈들은 오늘 우리 남반부 땅에 폐물전차를 끌어 드림으로써 《부흥》을 떠버리며 남반부 인민을 기만해 보려고 날뛰고있다

그러나 인민들은 잘도 명명하였다. 그렇다! 나이롱전차! 남반부 인민들은 낡아빠진 이 전차가 우리 민족 산업을 완전히 정복하며 짓밟기 위한 도구의 하나라는 그 본질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했다. 낡아빠진 나이롱 전차여, 그리고 낡아빠진 식민주의여 그대가 남의 나라의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인제는 쓰레기통에 굴어가야할 때가 아닌가!

아이젠하워주의 의 노리는 것



박승히 그림

신 홍순

요즘 괴뢰군내에는 갑자기 도장 받는 일이 벌어졌다. 각 대대별로 주욱 렬을 지어 한사람 한사람씩 차례로 엄지손꾸락에 시뻘건 인주를 묻쳐 명부에 적힌 자기 이름 밑에다가 꾹 찍는 것이다.

그 명부란 다른 것이 아니라 《직업군인 지원서》다 여기에 일단 한번 도장만 찍어 놓으면 금후 절대 제대는 할 수 없고 《직업군인》으로서 한평생 군무에 종사해야만 되는 약속문건인 것이다.

이것은 물론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군비강화책의 한 방법으로서 이미 훈련된 전후군인들을 계속 군대내에 붓잡아 두려는 심산으로 만들어진 《묘안》이다.

만약 이러한 내막을 《국군》 사병들이 알아 채린다면 그 지긋지긋한 《국군》 살이를 한평생 하겠다고 선뜻 그 지원서에다 도장을 찍을 리가 만무인 것이다.

그러므로 각대대장은 자기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별별 흉계와 갖은 폭압으로 손도장을 받는데 그 하는 짓이 가관이다.

《에— 앞으로 표창을 할 때나 또는 보급품을 줄 때나 그리고 제대를 시킬 때에 이름자가 틀려서 간혹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똑똑히 밝히기로 됐으니까 이 명부에 적힌대로 자기 이름자가 틀림 없다는 도장을 찍으란 말야!》 또 어떤 대대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한다. 《우리 대대내에는 보급품 도적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 했을시에 철저한 조사를 하기위해서 각자의 지문을 받아 두기로 했어!》

이런 방식으로도 손도장을 받고 또 어떤 데서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한다.

《제대하고 싶은 사람은 바른쪽 엄지 손꾸락으로 지장을 찍고 만약 계속 직업군인으로 있고 싶은 사람은 왼쪽 엄지손꾸락으로 지장을 찍으란 말야!》

그런데 만기가 다 지난 사병들은 제대시켜 줄 때를 암만 기다려도 깜깜소식이다 그래 용기를 내서 대대장에게 물어 보았다.

《저는 제대하고 싶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왜 안보내주십니까?》

《음 도장을 찍었으면 직업군인이 되겠다고 헌거겠지 제대하는데 무슨 도장이야?》

《전번에 대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대하고 싶은 사람은 바른 쪽 손으로 도장을 찍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왼쪽 손으로 도장을 찍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른 쪽 손으로…》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왼쪽이고 바른쪽이고 지원서에 찍은 손도장이니까 제대는 시킬수 없단말야》

이렇게 해서 깡그리 《직업군인 지원서》에 강제 손도장을 받았다.

강 상위

과리의 일간신문 《프랑스•쏘아르》 기자 루시언•보다르는 남조선을 방문하고 쓴 레뽀르따쥬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하루는 서울의 어느 모자점으로 《대통령》 비서실로부터의 전화가 걸려 왔다.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친히 그곳으로 가서 모자 하나를 사려 하는데, 좋은 모자가 있느냐고 물었다. 모자점 주인은 있다고 대답했다. 얼마 후에 비서가 모자점으로 달려왔다. 비서는 상점 안을 두루 살펴보고나서 그중 좋은 모자 하나를 골라 잡고 물었다.

《어디 제품이요?》

《불살리노입니다. 아주 고급품입니다.》

《그러면 저기 저 모자에 붙어있는 한국제라는 표를 떼서 이 모자에 붙이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물으시거든 한국제라고 대답하시오.》

《네》

《값은 얼마요?》

《일만환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9천환을 받으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오거든 모자값이 천환이라고 하고 천환만 받으시오.》

그리하여 그날 오후에 리 승만은 천환짜리 한국제 고급품 모자를 사서 썼다. 그리고는 한국제 모자는 질이 좋고도 값이 싸다고, 기회가 있는 때마다 자랑하군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서울에 와있던 서서 상인이 어느 연회장 입구에서 리승만을 보자 하마트면 소리를 지를 정도로 놀랬다. 그는 리 승만이가 쓴 모자를 자세히 바라보고 있더니 옆의 사람에게 속사겼다.

《저건 분명 내 모자네 리봉만 봐두 분명 내 거네. 불살리노에는 보통 저런 리봉을 두르지 않는 법이야, 그런데 내가 저 리봉이 특히 마음에 들어서 단거라네, 틀림 없는 내 모자야…》

《《대통령》의 모자가?》

《그래, 얼마 전에 제대군인 같은 복장을 한 괴한에게 습격을 받아, 저 모자까지 도적을 맞혔었네…》

알고 보니, 도적놈 덕분에 리 승만은 한국제품은 질이 좋고 값이 싸다는 것을 자랑할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루시언•보다르의 레뽀르따쥬에는 이와 류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도 소개하고 있다.

미국 주둔 기관으로부터 각종 기계들을 빌려다가《한국제》라는 가'자 상표만 붙여 놓고는 전람회를 열었다. 그리고는 이 전람회를 돌아보면서 리승만은 만족을 표시하였다.

미국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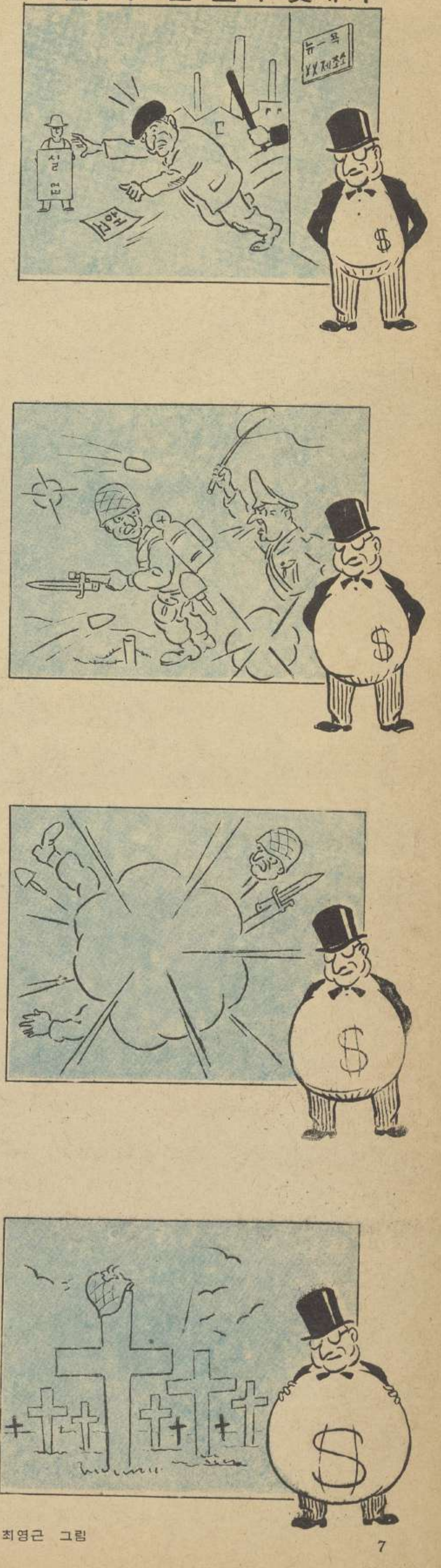
《남을 속이는 가장 좋은 비결은, 속이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속는것이다.》

유엔 군비축소 위원회에 참석한 미국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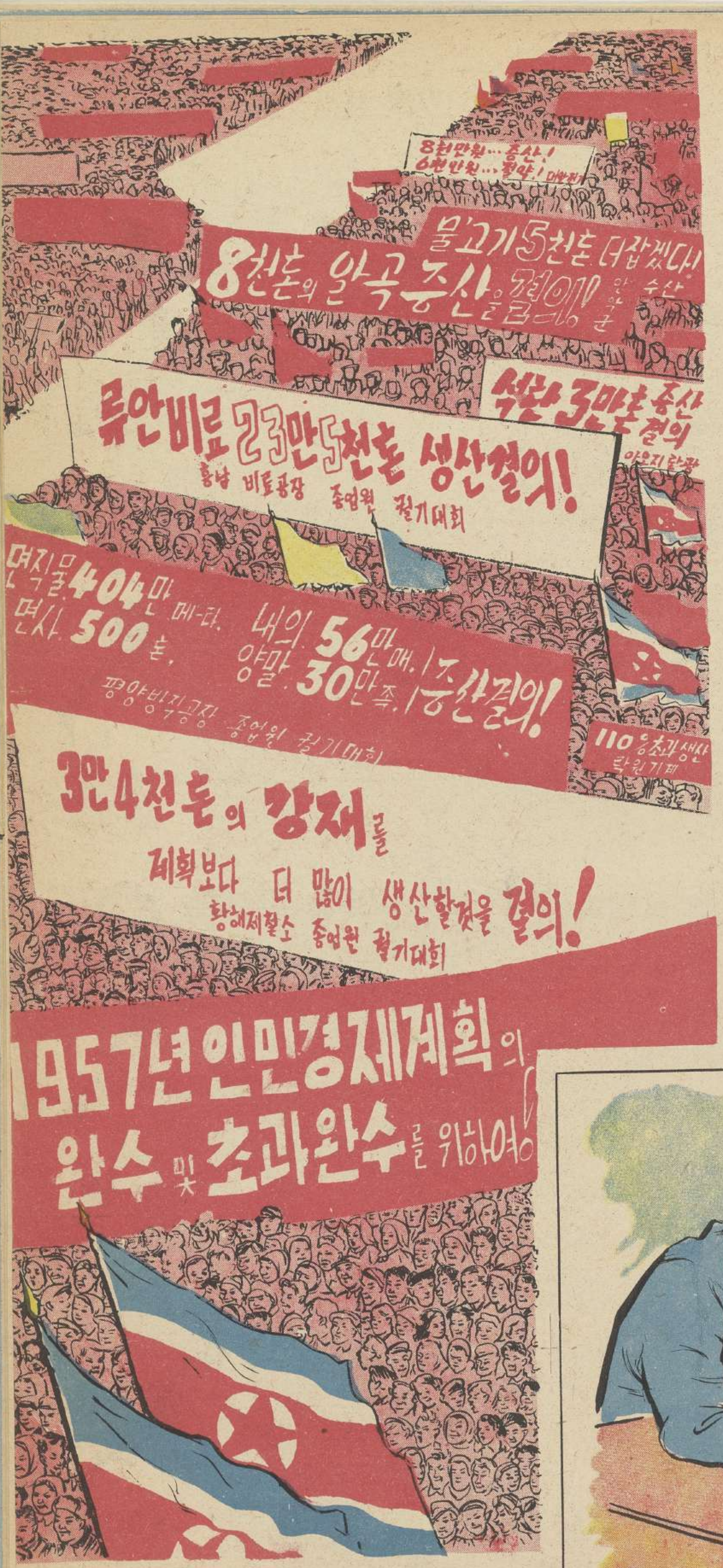
미제는 군비를 축소하며 원자 및 수소무기의 금지를 위한 쏘련의 합리적인 제안을 무조건 거부함으로서 군비 축소 위원회 사업의 성과적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홍종호 그림

기름 져가는 딸라 뱃대기



최영근 그림



조명식 그림

리영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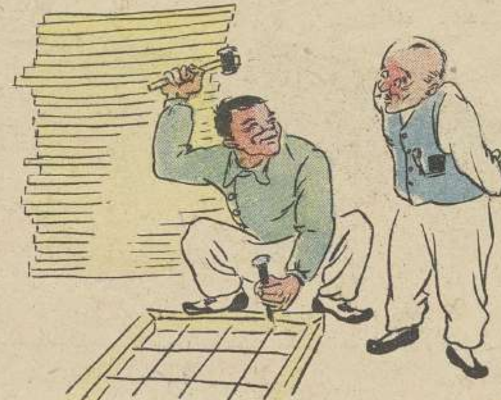
—우리의 결의를 큰소리라고 비웃더니
성과는 그보다 더큰걸!

백인균 그림

송용남 그림

홍종호 그림

두더지—야! 빨리가서 퇴거 수속해야겠다



조명식 그림

—그 많은 문짝은 뭘 하시려오
—더 많은 벼를 증산하려고요 랭상모 문짝입니다

최영근 그림

—황해 제철의 강재 2 만톤 초과
증산이다 맛이 어떠냐?

어떤 사무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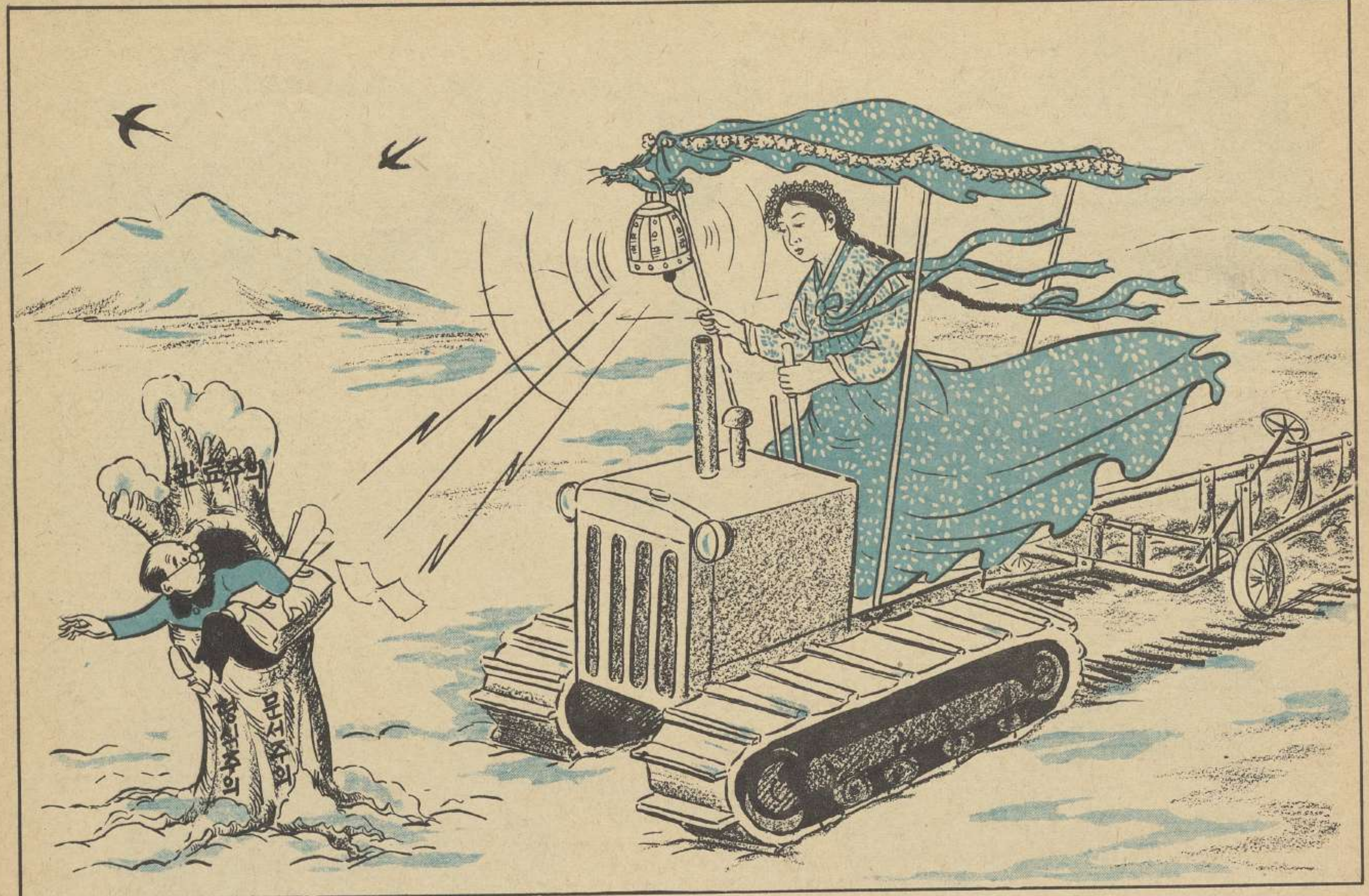
—로동자들의 기세가 대단하던데요
—나는 우리 력량을 과소 평가 했드랬어

하나의 길로 통하는 두개의 결의

북반부에서 남반부에서

최영근 그림

5개년 인민경제 계획의 첫해의 봄은 차저 왔다



원광수 그림

—빨리 그 구멍에서 들로 나오시요

김 영철

출고 대장을 뒤적이던
자재 공급부장의 가슴이 철렁!
두 눈을 부비고 다시 보아도
분명 잔고가 얼마 없구나.

당장 제철소로 출장이다.
서두르면 낮차를 탈 수 있으리.
자재비 보다 려비가 많아,
이번 길이 거북은 하다만은,

볼트 구멍을 무엇으로 메꾸랴?
나무를 깎아 넣을 수도 없고
진흙으로 채울 수도 없는 것
배는 시운전을 기다리는데—

그렇다, 정정한 다리를 두고
자재를 떨궈서야 될 말인가
하물며 광석이 흔한 이 나라
쇳물이 폭포처럼 쏟아짐에랴!

부랴 부랴 수속을 끝마치자
서류를 가방에 밀어 넣으며
외투 소매를 짐작으로 찾으며
—걸음아 날 살려 다고!

다녀본 적도 없는 지름 길로
그는 쏜살 같이 내닫는다.
정거장만 바라보며 달아가다
아뿔사 그만 넘어졌구나

공무 려행에 나선 발 길을
감히 부뜰려는 자 그 누구냐?
오늘은 바쁜 걸음이니
눈여겨 두었다 요정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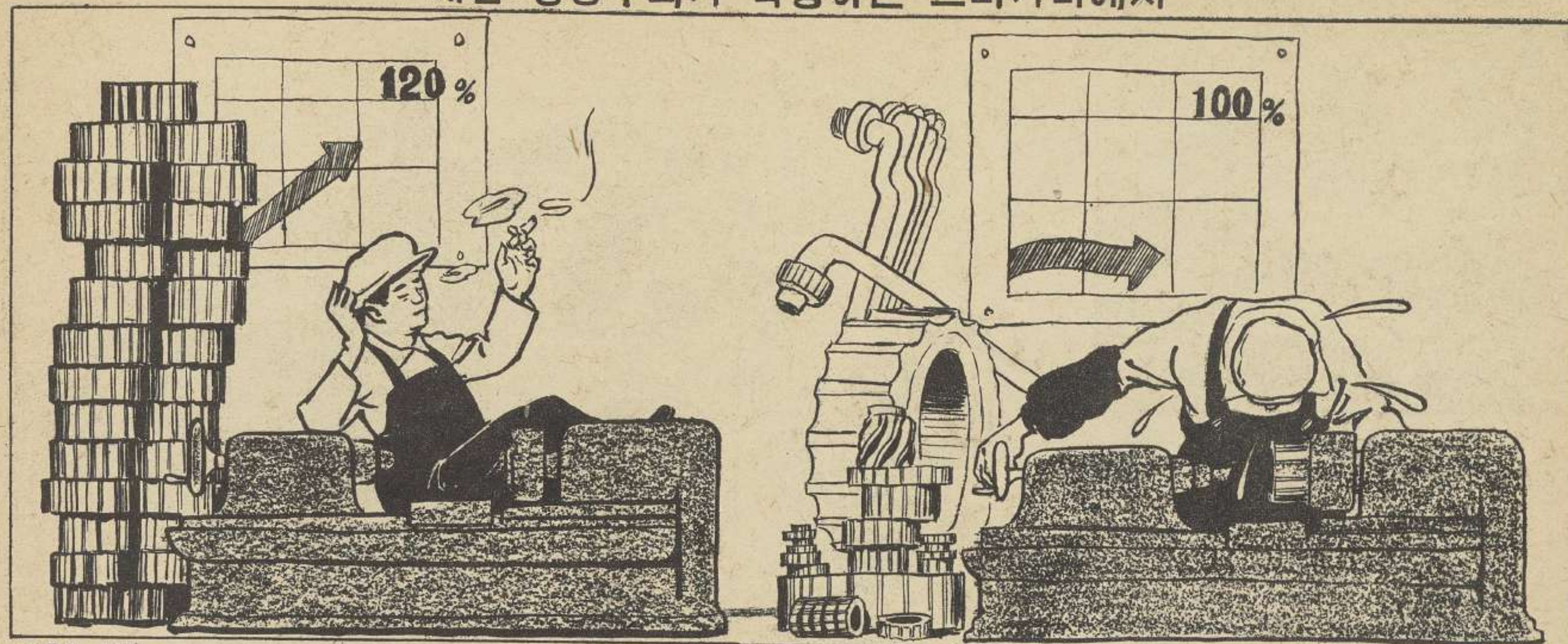
성 난 시선이 두리를 노리는데
안겨드는 페철 무지의 원천……
아아 여기서 볼트를 건진다면
석달을 쓰고도 오히려 남으리!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뜨락또르는 있지만 꼼바인이 있어야 선진 영농을 하지…
—우리 벼 농사에는 이 랭상모가 가장 훌륭한 선진 영농법의 하나랍니다

백인균 그림

개인 영웅주의가 작용하는 브리가다에서



홍종호 그림

일부 브리가다 책임자들 가운데서 자기는 쉬운것만 하고 어려운 과제는 남에게 물리려고 하는 경향들을 찾어 볼수 있다.

유 철림

까욱, 까욱 까르륵……

어느날 아침, 늙은 까마귀 한마리가 나무 우에 앉아서 하소연을 하듯이 울고 있었다. 눈은 어둡고 날개도 늙어서 자기 무리로부터 떨어져 외롤이 되였던 것이다. 머리를 쳐들고 사면을 두리번거린다. 때마침 나무 가지를 흔들며 지나가는 바람 결에 어더로부터선지 그의 구미를 돋우는 썩은 고기 냄새가 풍겨왔기 때문이다. 늙은 까마귀는 자기의 로련한 코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한때는 까마귀 떼의 앞장을 서서 용케도 먹을 것을 찾아내던 코였다. 어느 구석, 어느 오물 데미 속에 깊숙히 묻혀 있드래도 썩은 고기만 있다면 용케도 그 냄새를 맡아내던 경험을 쌓아온 코였다. 그런데 썩은 고기 냄새는 점점 더 강렬히 코를 찌르게 되였다. 어떻게 된 일인가?! 썩은 고기 냄새는 까마귀가 앉아있는 나무 밑으로 걸어 오고있는 사람한테서 풍겨 오는 것이 아닌가?!

눈은 충혈로 빨갛고 입에서는 아직 술내를 피우고 있는 이 사내를 보자 늙은 까마귀는 그만 실망하고 말았다. 어제'밤에 어느 상가에서 밤을 새우고 오는 길이기 때문에 상가에서 묻어온 냄새일게라고 생각해서다. 그러나 썩은 고기 냄새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였다. 늙은 까마귀의 로련한 코는 거기에 썩은 고기가 무데기로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구미를 돋우는 냄새에 이끌려 까마귀는 그 사내의 머리 우를 선회하면서 그를 따라갔다. 사내가 공장 사무실로 들어서자 까마귀는 아무래도 단념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서있는 나무 우에 앉았다.

얼마 후에 아까의 사내가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까마귀는 눈을 꿈벅이면서 자기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썩은 고기 냄새는 그 사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내 자신에게서 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사내는 골수 쩜까지 썩어서 한번 부리를 박기만 하면 썩은 고기 뗑이가 문적문적 뜯어지리란 것을 늙은 까마귀의 로련한 코는 알아 냈다. 까마귀는 아무래도 이상스러웠다. 분명 썩긴 썩었는데 걸어다니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까마귀는 의심이 풀리지 않아서 그 사내가 자재 창고로 가는 뒤를 따라가서 한나절 동안이나 그가 나오기만 기다렸다. 사내가 창고에서 나와 시내로 향했을 때 늙은 까마귀는 드디여 결심했다.

—네가 아무리 걸어다니며 이야기는 하지만 너는 썩은 고기가 분명하다. 무디긴 했으나마 경험 많은 내 부리로 네 고기를 뜯으리라!

그리하여 날개를 펼쳐 사내의 머리 우를 한번 선회하고 나서 덮치려고 내리꼰지다가

——앗! 역시 살아 있구나!

하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썩은 건 분명한데, 살아있는 것도 역시 분명하다!

그리하여 이 늙고 경험 많은 까마귀는 이 사내를 이틀 동안에 세번이나 덮치려고 하다가는 실패했다.

까마귀의 거동을 이곳 공장 자재부장인 그 사내도 눈치 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까마귀를 쳐다 보면서 중얼거렸다.

《요즘은 웬 까마귀가 이렇게 극성을 부려? 재길 재수 없게스리!》

자재부장은 퉤! 하고 침을 배앝고는 다시 자기 생각에 잠기며 회심의 웃음을 띄였다.

《지배인한테두 그럴듯이 말했구 기사장한테두 어물어물 해 뒀단 말이겠다, 창고의 친구들에겐 자갈을 물려 놓았구……이번 행부에두 삼사만원은 나오겠지……》

그후 오물데미를 찾아다니며 죽은 쥐 같은 것이나 쪼아먹으며 지내던 늙은 까마귀는 하루 아침 지난 일을 회상하던 중에 문득 느낀 바가 있어서 중얼거렸다.

《그랬군, 그 썩은 고기 냄새를 피우던 자는 역시 썩을대로 썩었던 건 확실하다. 내가 덮치려다가 실패한 건 그자의 코 입만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때문이다.》

그리하여 늙은 까마귀는 입만 살아있는 썩은 고기 뎅이를 쪼아 먹으려고 전날의 공장으로 다시 찾아 왔다. 그러나 거기서 전날의 그 자재부장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그사이에 까마귀의 부리가 미치지 못할 교화소로 가있었다. 까마귀는 감탄했다.

《사람이란 과연 만물의 령장이로구나!》

늙은 까마귀는 인제부터는 그 입에 속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했다.

국가 재산에 손을 댐으로해서 자신을 속속드리 썩게하고 있는 자들은 인제는 입이 아무리 살았다 하드래도 늙은 까마귀조차 속일수 없다는 것을 각오할 때가 아닌가!

뜻 밖의 질문

송용남 그림

1. —어서 앉으시요
2. —잠간만……
3.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4. —수입탄을 절약한 경험을 말씀 해 주세요

호박씨 까서 한입에 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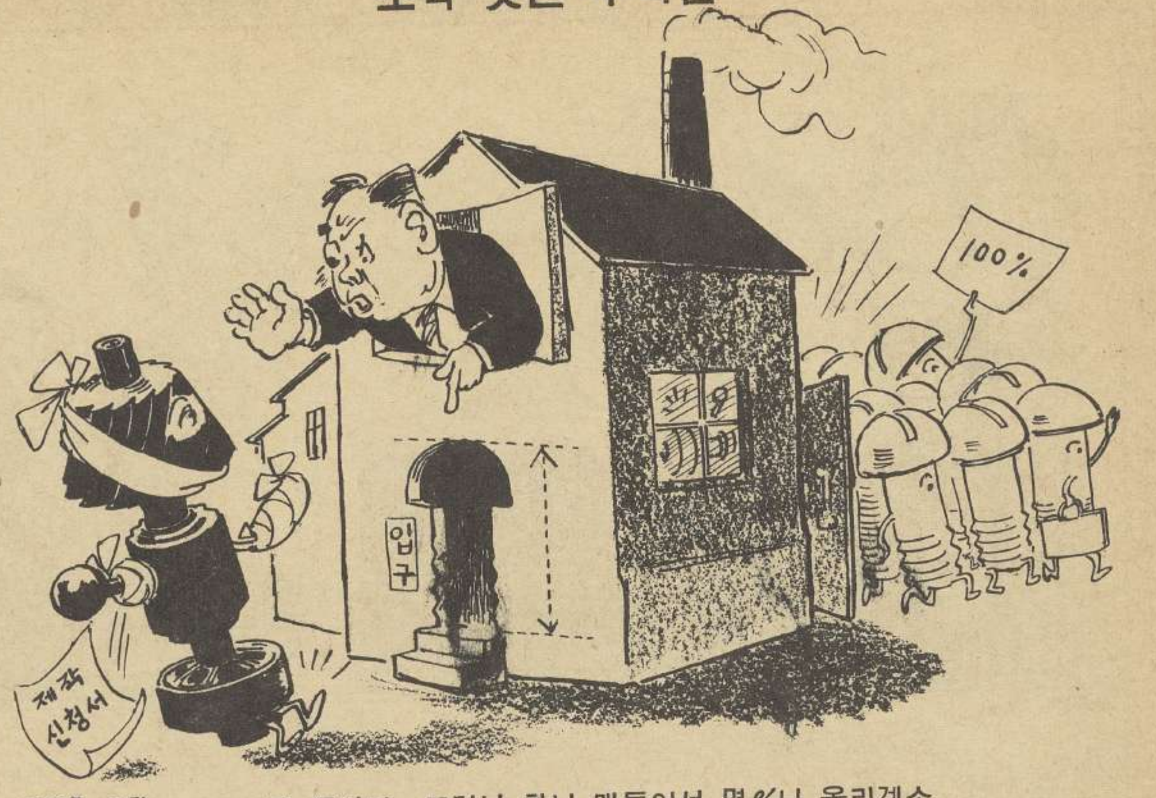
—절약 했다 다음에 사다주지

—절약 했다 다음에 사다주지

—절약해서 딱 한잔만…

원광수 그림 ·········

소박 맞는 부속품



리영춘 그림

—그만 둡시다. 그거나 하나 맨들어서 몇%나 올리겠소

일부 부속품 제작공장 일군들은 품이 많이 들고 수량이 적은 부속품 생산은 싫어 하는 경향이 있다

록 음 실

김 상애

△ 계산은 대강 대강

동 연료 상점에서는 동기 연료 공급을 충족하게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본래 시 연료 관리소에서 고려한 남어지 만들어진 100kg 궤짝은 각 상점에서는 경우에 따라 아주 융통성이 풍부한 용기로 쓰여지고 있다.

원래 만들어 질 때의 계산과는 달리 네모 난 모사리에는 탄을 채워 넣을 심산도 하지 않거니와 또 요사이 같이 꽁꽁 얼 때에는 큰 덩어리를 엉성하니 서너 개면 한 궤짝. 그래서 모두들 하는 말이

《두톤 가지고 세톤은 문제 없을거야!》

한창 탄을 퍼 담고 있던 점장은

《다른데서두 다 그렇게 하는데요!》

옳은 말씀이다. 다른데서도 다 그렇게 하는것은 시민들이 다 아는 바이고 벌써 그 궤짝이 100kg 성능을 못 가진다는 것도 평양 시민이 다 아는 사실이건만 평양시 연료 관리소에서만은 아직 모르는 모양.

△ 래달 부터

—여보 금년은 5개년 인민경제 계획을 초과 달성해야 할 첫해이니만큼 우리 생활도 계획있게 절약을 해야 되겠어요!

—암 그것 참 좋은 의견이요! 어떻게 해서 절약을 할까!

—좋은 수가 있어요! 우리 꼭 벙어리 저금을 하기로 합시다.

—그것 참 좋은 의견이구려!

이렇게 되여 정월부터 인철이네 집에서는 벙어리 저금이 시작되였다.

며칠후 인철이 아버지는 몇몇 친구를 데리고 밤이 늦어서 얼근히 취하여 돌아왔다.

—여보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인데 뭐 좀 차리우

—월급이 래일 모레인데 어떻거나?!

—여보 그 벙어리 저금 있지않소?!

—래달부터 하면 되지않소?

—작년도 일년 내내 래달 래달하다가 12월에 가서는 래년부터라더니 또 래달이요?

△ 첫 전 달

제1차 5개년 계획 첫 해를 맞이하여 결의도 높은 사리원 렬차구 교번실에는 《상부 지시 전달판》이 있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첫 지시 전달이 나붙었다. 그것은 아주 경사스러운 《회람》이였기에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회 람》

《1957, 1, 8, 량 순모 동지의 결혼식에 제하여—

지난 기간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앞으로도 본 직장에 결혼 대상자가 많으니 부조를 한다는 것은 상부에서도 반대함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량순모 동지에 대하여는 가정 환경과 또는 모든 조건이 곤난한 환경에서 진행됨으로 친우들로 하여금 다소의 부조를 하여 이 사업을 추진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서 다소의 부조를 요청 합니다.》

1. 4. 발기자 강 기 성

×

공시한 하루 동안만 해도 행정 책임자 강 기성을 위시하여 많은 부조가 들어왔다. 이리하여 량 순모 동무는 행정측의 후원 밑에 성대한 결혼식을 하게 되였음을 만족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한날에 있은 렬차원 고 진애 동무의 결혼식에 대해서는 함구무언.

그래서 요사히 하는 말이

《우리 렬차구장 동지는 낯가림하는 애 같아! 이 사람에게는 이런 얼굴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 암만해도 모를 일

철수는 아버지와 같이 리발을 하러 국영 리발관으로 갔다.

마침 손님이 많지 않아서 아버지와 철수는 나란히 의자에 올라 앉았다.

리발사 아저씨는 능숙한 솜씨로 덥수룩한 철수의 머리를 상큼하니 깎아 올린다. 눈 깜짝 할 새에 뒷'머리에 면도질까지 삭 삭 하더니 《다음 손님》 하는 바람에 철수는 냉큼 일어나 자리를 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멀었나??

척 제끼고 면도하는 아버지는 연신 코까지 고는걸…

그러더니 머리를 감고 또 도루 앉아 가위로 또 깎고 머리를 빗고 얼마 후에야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나는 벌써 깎았는데!

—응 그래!

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10원짜리 몇장을 세서 료금을 물었다.

보고 있던 철수는 이상하다는 듯이

—아버지는 나 보다 오래 오래 깎았는데?

—그래?

—그래도 나하고 꼭 같이 냈나?

—그럼

여섯 살 잡히는 철수는 암만해도 모를 일이여서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도시 경영성 편이 시설처에서 그렇게 정해진 료금이라고——

△ 꿩 먹고 알 먹기

국영 식료품 상점 매대에는 보기에도 스산한 과일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다.

어린애 업은 어머니가 상점 안으로 들어서면서 물었다.

—얼지 않은 건 없어요?

—어느 어름나라에서 온 것인지 모두 어름덩어리야— 먼저 들어와 있던 청년 하나가 빈정댄다.

—언 것이 더 문문해서 잡숫기도 좋고 맛이 있어요… 매대 뒤에서 변명이나하듯이 롱'조로 대'구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럼직도 한 말이다. 일부러 맛이 있고 문문한 것을 구해 오는지는 몰라도 겨울이 되면 퍼룻퍼룻 얼었다 녹았다 볼썽 사나운 사과가 상점 매대에 오른다.

그런데 이 사과가 매대에 오르기까지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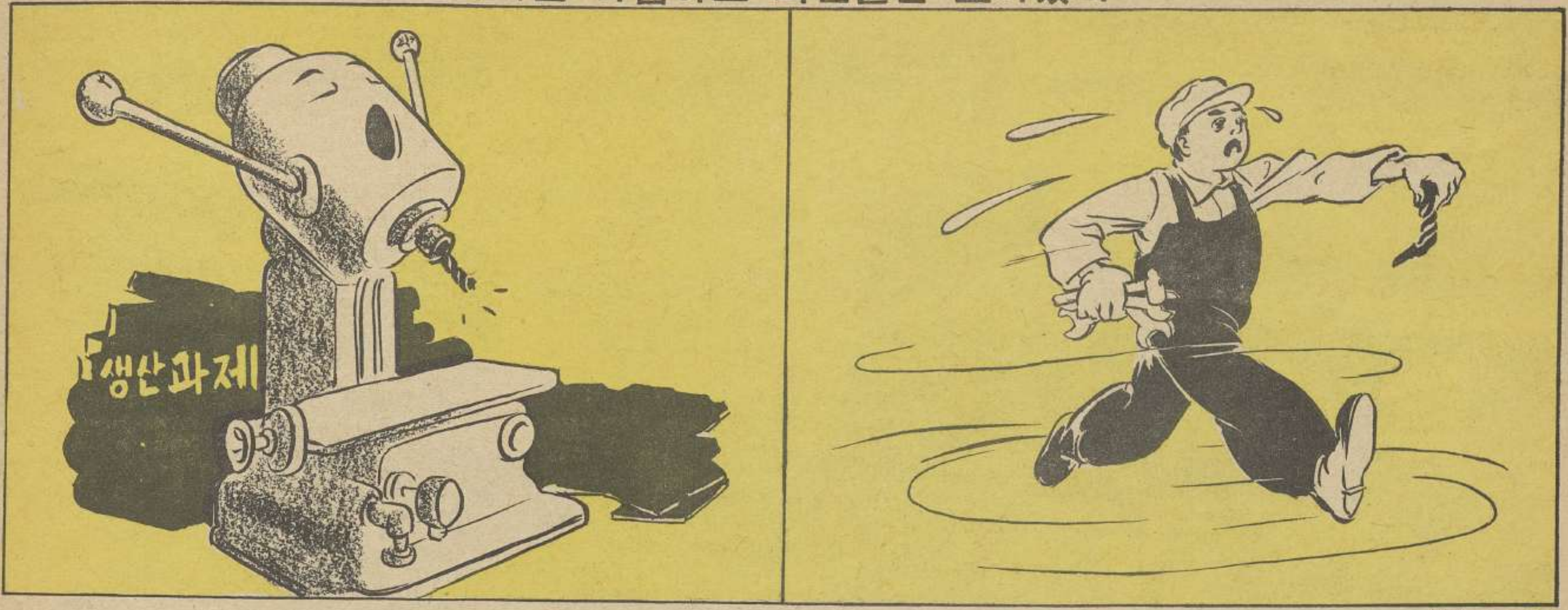
시 식료품 도매 바자는 여러 계단의 복잡한 가공을 거쳐야만 했다.

우선 인수된 수백톤의 사과를 야적한채 포장하노라고 눈 보라 속에서 작업을 해야 했다. 그러는 동안에 고드래'돌 처럼 꽁꽁 얼어서 반제품이 된다.

포장을 끝마친 반제품은 그 다음부터는 일기가 하는 대로 얼었다 녹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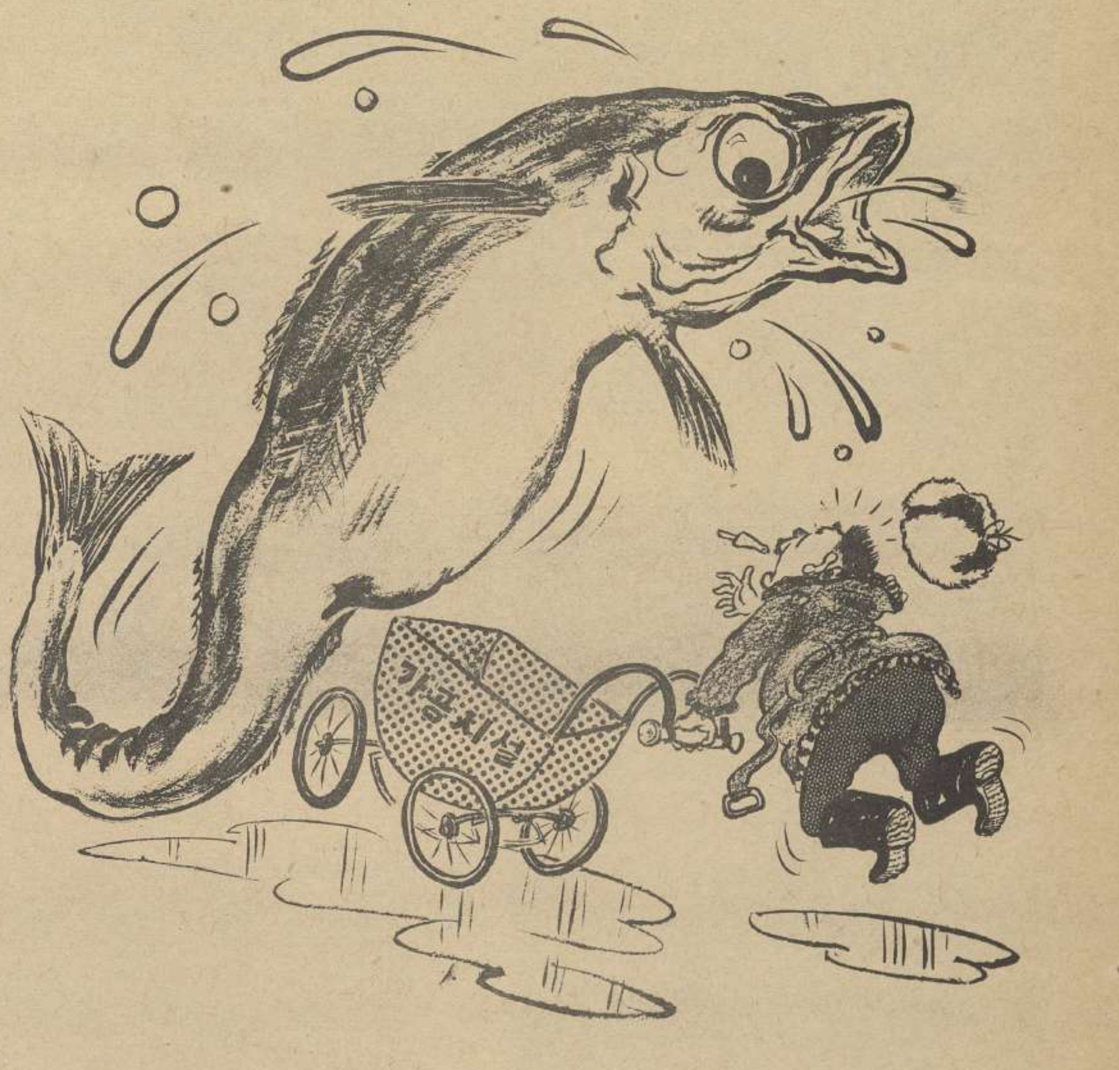
기차 자동차에 실려 시 식료품 도매바자까지 이르는 동안에 거의 완성품이 된다. 각 구역 도매 상점에서는 시 식료품 도매 바자에서 이 완성품을 인수하여 각 국영 상점 매대로 분배한다. 이렇게 여러 계단의 가공을 거쳐 매대에 올라 또 다시 마지막 가공을 가 해짐으로써 효성이 지극한 상점 동무들의 마음에 드는 잇발 없는 늙은이들이나 먹기 좋은 완성품으로 된다. 그런데 이 가공품은 여니것보다 값도 절반이니 꿩 먹고 알 먹기라고

기대는 하품하고 회전률은 높아졌다



홍종호 그림

일부 로동자들 가운데서 작업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를 잘하지 않고 기대를 운전하므로서 공구 도구들을 빌리려 다니는데 시간을 랑비하는 현상을 찾어 볼 수 있다



백인균 그림

명 태—지배인동무! 명태를 깔보는 거요! 난 바다로 도루 가겠소!
지배인—안잡힌다고 걱정햇드니 잡혀도 야단이군!

국제 유모어 소개

漫画
중국 만화 잡지 1956, 71호에서 전재
왕 락천 그림

—보고. 문짝 한개 롱구 뽈 두개가 없어 졌습니다

—제길할 사람 3명이 또 없어졌구나!

Eulenspiegel—독일 "오이렌스삐갤" 1955, 44호에서 전재
헤루푸트 비드스투르프 그림 (덴마크 코펜하겐)

납세자들을 어떻게 진정시킬것인가?

심리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놀라운 사실에 주의를 돌렸다. 즉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놓기 싫어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아무러한 '대'가도 받지 못할 때 그러하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납세자들은 세금 내기를 아주 싫어한다. 더우기 한편으로는 전쟁 전보다도 빈번히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며 다른 면으로는 그들의 돈을 그들이 전혀 원하지도 않는 것에 소비해 버리기 때문이다.

미국 신문《텔레그라프》이 전하는바에 의하면 로쓰안젤쓰의 주권 당국은 납세자들을 진정시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을 찾아 냈다고 한다. 즉 《세무국 전체 관리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날에는 웃지 말며 유쾌하고 무사태평한 낯을 보이지 말도록 명령했다.》 세무관에게 준 설명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결국 납세자들은 불행한 바 우리들도 불행한 낯을 보여야만 한다》

납세자들에 대한 이러한 교묘한 방법이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들은 로쓰안젤쓰의 이 선진적 경험을 보급하는데 다분히 도움이 될만한 광경을 선명히 그려낼 수가 있다:

세무국 세금 징수일. 카—텐들은 내리우고 애도의 표식으로 지붕의 국기들도 내리웠다. 샨데리들은 검은 천으로 감기였다. 눈에 띄지 않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된다. 쏘판의 장송곡의 슬픈 음률이 타이프라이타 소리들을 삼켜 버린다. 각 부서의 관리들은 시시각각으로 자기 머리에다 재를 끼얹는다. 타자수들과 속기원들은 고대 비극에 나오는 합창인양 소리내여 신음하고 있다.

때마침 우울한 납세자가 들어온다. 녀자 회계원은 그의 고지서를 보고 창문으로 몸을 던지려고 한다. 이때 이 녀자는 울음을 터뜨린다. 《안됩니다. 주인님! 당신한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담시킬 수 없어요! 안될 일입니다 안돼요. 나를 붙들지 마세요, 차라리 나에게 청산을, 비상을, 시안카리를 주세요……》

그런즉 감동된 납세자는 자진하여 세금을 문다. 그리하여 세무국들에서는 꾸며낸 연극들이 흥행되고 있다. 징수한 돈으로는 수소 폭탄들이 생산되며 《제네랄 모—터쓰》와 《듀폰》에게는 수십억의 주문들이 들어온다. 《제네랄 모—터쓰》와 《듀폰》은 웃음지으며, 납세자는 울며, 세금 징수인들은 소리를 내여서는 울며 자신을 돌아 보면서는 웃는다.

모든 일은 대단히 단순하며 인도적이 아니냐!

고로꼬질 35호

까마귀

까마귀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겼다.
그것은 닭 장을 경비하는 것.
까마귀는 우쭐해서 꼬리를 펼쳤다.
—자 인젠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밤은 다가왔다. 사방은 캄캄하고
쥐죽은 듯 고요하다.
까마귀는 지붕에 올라 섰는데
갑자기 발 자국 소리
—물러갓! —까마귀는 사납게 소리 질렀다.
그렇지 않으면 갈기 갈기 찢어 놓테다.
늦기 전에 썩 물러 갔!—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여우를 알아 보았다.
여우는 온순하게 대답하기를
—자넨 조심해서 알아 보게
나는 옛 친구 알룩이 숫닭을 만나러 왔네
그런데 어째 캄캄한지
도저히 문을 찾을 수가 없군 그래—
우쭐했던 까마귀 송구스러워져서……
—사실 아무 것도 보이질 않군요.
당신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량한 마음씨에 대하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이요 어서 바른 쪽으로
저기에 닭우리로 들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까마귀에게 보초를 임명한 여기에서
손해를 볼 건 정해진 일이다.

그·월토위크

(한 동신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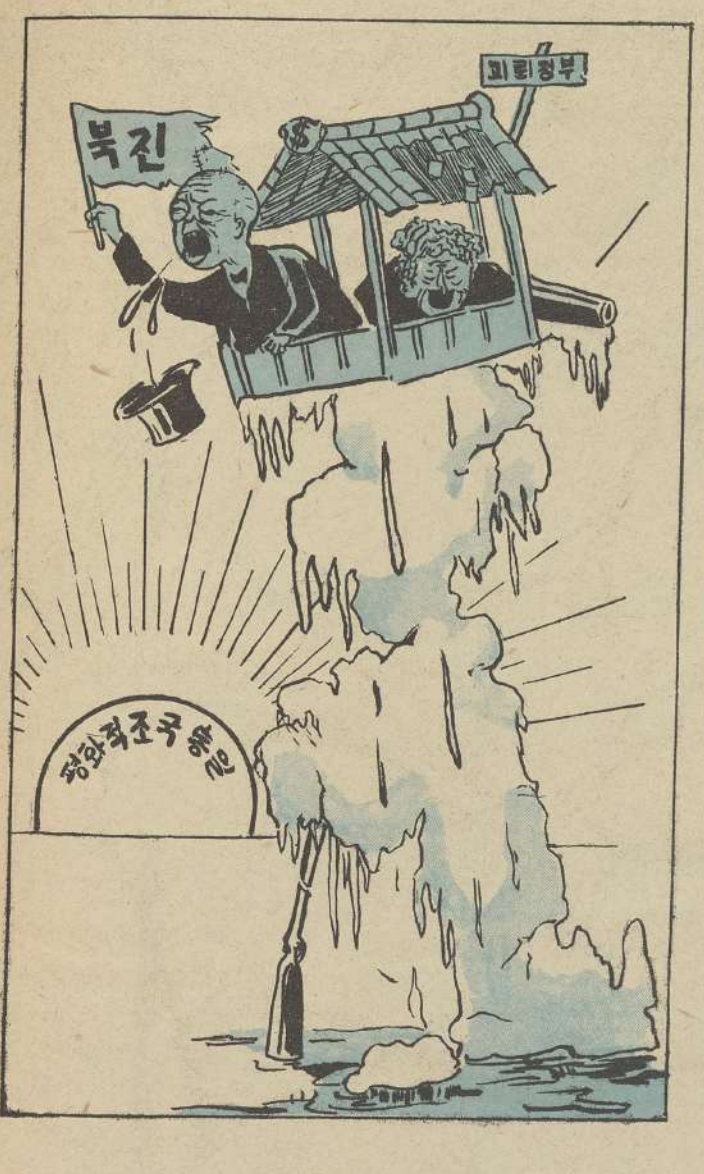
여러가지 잡지들

어머니의 병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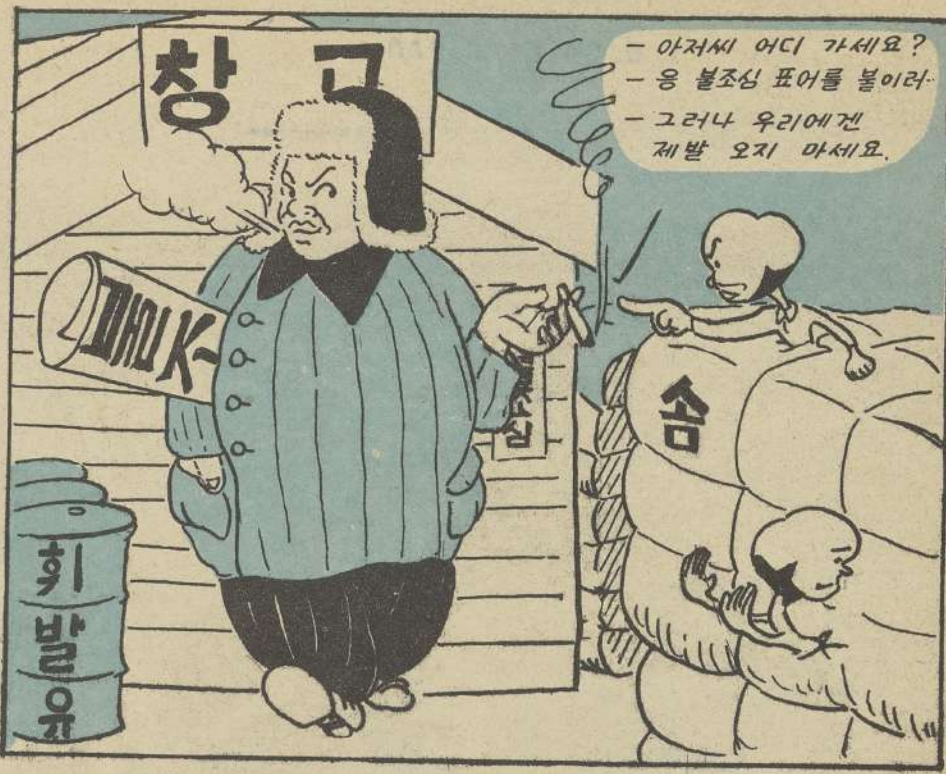
장 대선

현태 (퇴근하는 옷 차림으로 나와서 밖을 내다 보고) 어 여보게 성철이 성철이!
소리 어
현태 내 곧 갈게 먼저 가서 준비나 탁탁히 해 놓라구어! 명태찌개 부글부글 알지!
소리 어
현태 (혼자 만족해 하면서) 자 이 학습 반장이 어딜 갔나? (둘러 본다)
명환 (학습장을 들고 나오며) 아니 오늘 기능 전습회가 있는데 어딜가나?
현태 음 난 지금 자넬 찾아 댕기는 길이야
명환 왜?
현태 참 저 난 오늘 전습회에 참가 못하겠어
명환 어째서?
현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명환 아무리 급한 사정이래두 오늘만은 한사람두 빠져선 안되네 우리 주물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조형 작업의 표준 조작법》을 강의 받는 날인데 더구나 자네 같은 오작품 명수가 빠져서 되나?
현태 뭐? 오작품 명수? 아니 그래 주물 직장의 오작품은 전부 내가 다 냈단 말인가?
명환 작업 총화 때마다 도맡아 놓구 비판 받는게 누군가? 더구나 금년에는 오작품을 퇴치 하겠다구 5개년 계획의 첫 결의까지 다졌는데 오작이 계속 돼서야 되겠나? 이 사람아.
현태 누가 오작품을 내구싶어 내나? 다 기술 부족이지.
명환 그러니까 기능 전습회에 빠져선 안된다 그런 말야.
현태 글쎄 나두 오늘은 꼭 참가 할라구 했는데 말야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시다구 기별이 왔네그려.
명환 어머니가? 아니 아침에두 일을 하시든데?
현태 울어머닌 속아리가 있다네.
명환 그래?
현태 그래서 의사를 모시구 가려구.
명환 글쎄 그런 급한 사정이라면야 정 할 수 없지만… 자넨 꼭 들었으면 좋을걸.
현태 표준 조작법이란거야 강의 들으나마나 뻔한건데 뭘그래? 자 조형 작업에서 모래를 세게 다지면 기포가 생기구 약하게 다지면 모래가 떨어지구 물을 너무 치면 벌의 집이 생기구 그리구 또 뉴무형을 잘 안 닦으면 제품의 거죽이 옴두꺼비가 되구 허… 자 이만하면 됐지?
명환 오작의 원인을 입으로만 외우면 뭘해? 실지 작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문제지.
현태 자네가 학습 책임자이만치 매일 자세히 가르쳐 주게나 자 그럼 난 가보겠네.
△나가려 할제 최씨 학습장을 가지고 헝하니 들어온다.
현태 아니 어머닌 왜 왔수?
최씨 아 오늘이 학습회 날이 아니냐? 그래 학습장을 집에 두고 왔기에 가져 왔다. (학습장을 털어준다)
명환 아주머니 어디가 편찮으시다드니?
최씨 아프긴 어디가 아파?
명환 아니 현태 동무가 그러는데 갑자기 속아리가 나셨다든데요?
최씨 속아리? (현태를 보고) 누가 그러든? 멀정한 사람을 앓아 누으라구 악담을 하는구나!
명환 허허허 이 사람아 학습회에 빠지려구 헐 궁궁일다 꾸몄네그려? 시간됐네 자 가세.
최씨 (현태를 못 마땅하게 보며)에그 언제나 철이 들겠니?
현태 어머닌 그저 시키지 않는 일만… (힐긋 보고 따라간다)

독자특고



자강도 전천 석냥공장(서 춘일 그림)



평양 방직 공장 공무동력부(김 학선 그림)

잘못 걸린 친절 표어

조명식 그림

—동무가 잘 볼 수 있는데다 걸어두시오

쥐덫

김 상애

×

쥐구멍 안에서——

쥐장군 앞에 나선 이름난 정찰병 쥐바우가 보고를 끝마쳤다. 쥐장군은 낯빛을 변했다.

《쥐덫을 50만개나 만든다니 큰일 났구나! 빨리 평양으로 가서 쥐덫을 만들고 있는 정형을 정찰해 오너라》

그리하여 길을 떠난 정찰병 쥐바우는 평양에 들어서자 처음 만난 쥐에게 물었다.

《얘야, 평양에 덫이 얼마나 되니?》

《덫? 덫이란 어떻게 생긴거냐?》

《애, 너희들은 덫도 모르니?》

《??…》

《거 이상한데…》

이렇게 시작하여, 평양 시내를 두루 다 정찰하고 나서 쥐바우는 쥐장군 앞으로 돌아와 보고를 했다.

《내각결정을 받들고 생산협동조합 중앙련맹에서는 쥐덫 50만 개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각 도에 이미 분공을 주었습니다.》

《뭐? 벌써 분공을 줬어? 거 야단났구나!》

쥐장군이 놀라는 것을 보자, 쥐바우는 그를 진정시켰다.

《아직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분공을 받고 어떤 도에서는 좀 만들어 보다가 말기두 하구 아혀 말들지 않은 도두 있습니다. 류통부문에서 사겠다구 계약을하지 않기 때문이라나요. 류통부문에선 현품을 보구야 계약을 하겠다구 해서 견본을 만들어 주었더니, 그후론 감감무소식이구요. 류통부문에서 하는 말은 작년에 만든 쥐덫 중에 소리만 요란해서 쥐를 약간씩 놀라게는 해두 잡지는 못하는 덫들이 있다느니, 쥐덫이 팔리지 않는다느니 하고요. 그래서 책임을 서로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고만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증손자 고손자 대에 가서는 쥐덫의 화를 입을지 몰라도 우리 일생일대에는 념려할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심이다. 그 량반네들이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족속은 날마다 늘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 쥐덫이 조속히 만들어지지 않도록 책임전가에 힘쓰고 있는 분들이야 말로 우리 쥐나라를 위해서 더 없이 큰 공훈을 세우고있는 셈이로구나! 마땅히 우리 쥐나라 조정에 내신해서 쥐나라 훈장을 타게 해 줘야겠다.》

쥐장군의 결심이 이러한마큼, 우리는 쥐나라 훈장을 가슴에 차고 다니는 분들을 보게 될 날이 올는지도 모르겠다.

편집 위원 장 진광, 유항림 김 선락, 박 기성, 정 준기
신 홍순, 백 인균, 송 용남, 리 수근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7. 2. 10 ㄱ—71058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 2. 15 (값50원)

미국제 신형 쌕스폰

8034 ХВАЛЬСАЛЬ
В ПЭК
УЛ.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
22 1 12 Н8034

박승히 그